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분석 및 고찰

서영민, 장규태, 김장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Analysis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Pediatrics

Seo Young Min, Chang Gyu Tae, Kim Jang Hyun

Department of Pediatr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Objective: Organization of articles have study design, make hypothesis, sample gathering, statistical analysis and feasibility of conclusion and medical articles must be continuously published and be continuously monitored in order to raise the quality of research. Main characteristics of oriental pediatrics research in korea can be summarized as the increase of the number and the advances methodology in research.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rends and evaluate the level of oriental pediatrics.

Methods: The subjects were 244 articles published during the from 1986 to 2002 in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Pediatrics" In this study, all the articles pressed in this journal were divided into three classes, literatural, experimental and clinical articles and these were surveyed their chronological and thematic distribution

Results: Classifying the articles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oriental pediatrics , there were 103(42.2%) literatural articles, 90(36.9%) clinical articles, 51(20.9%) experimental articles. Clinical articles is gradually increasing although literatural articles is decreasing. About disease in oriental pediatrics, immunoactivity was 13, rhinitis and growth was 12, allergy was 11 and diarrhea was high frequent in literatural articles, statistics of chief complaints and rhinitis was high frequent in clinical articles, immunoactivity was high frequent in experimental articles

Conclusions: As can be seen from the above results, there has been many these published using various experimental methods and relating to oriental pediatrics on the symptoms and diseases and their treatments, but unfortunately they were not enough the transmission of

meaning of theses and contribution of learning, because how to do theses was not uniform and description was not evident. It is needed more careful attention and study in the method of theses works in order to further develop the specialty of oriental pediatrics.

Key word: Statistics of article, Journal, Oriental pediatrics

접 수 : 2004년 6월 30일, 채택일자: 2004년 8월 17일
교신저자 : 서영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Tel. 031-710-3737, E-mail: min6352@lycos.co.kr)

I. 서 론

논문이란 한 학자가 어느과제를 설정하고 상당한 시일에 걸쳐 연구에 종사하여 얻은 바 새로운 사실을 학계에 공표하려고 집필한 글¹⁾인 동시에 자기의 식견이나 사상 또는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발견된 진리나 사실을 알리는 보고서이며, 연구와 사색의 기록으로 자기의 상상이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한 문장²⁾이다.

논문은 정확성(Accuracy), 객관타당성(Objectivity), 공정성(Impartiality), 반복성(Reproducibility), 평이성(Readability), 창의성(Originality)의 6가지 본질을 갖추어야 한다³⁾.

논문을 통하여 특정학문에 있어 시대흐름에 따른 연구 경향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일이며, 또한 향후의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한방소아과학 분야의 연구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어느 분야에 관심을 가져왔는지를 돌이켜 보는 것은 한방소아과학의 현 주소를 파악하는데 매우 소중한 작업일 것으로 사료된다.

한방소아과학은 태생기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

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자라서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연령에 따른 건강의 표준을 강구하고 소아 특유의 생리병리를 연구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질병의 예방과 치료방법을 연구하며 특히 동의학적인 섭생법을 연구 검토하는 학문이다⁵⁾.

대한한방소아과학회는 1975년 12월에 창립되었으며 1986년부터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pediatrics)라는 명칭으로 학회지가 발간되었다. 1988년을 제외하고 1986년부터 1998년까지 학회지가 일년에 한번씩 발간되었으며, 한방소아과학이 전문과목으로 인정되었던(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1999. 12. 27)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매년 2권씩 발간되어 현재(2003년 7월) 제 16권 제 2호까지 발행되었고 여기에는 총 26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그동안 다수의 한방소아과학 논문들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정리나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용이나 방법의 중복성으로 시간과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로 낮기도 하였다.

이에 저자는 지금까지 한방소아과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형식, 연구방법,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최근까지 한방소아과학의 연구분야 및 연구경향에 대한 약간의 의견을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대상 및 연구방법

1. 조사대상

1986년부터 2002년까지 발간된 20권의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264편 중 논문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일반투고 형식의 글 20편을 제외한 24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방법

이상에서 조사된 논문을 먼저 그 특성에 따라 분류한 후에 주제별로 세분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논문분류에 있어 분류방법이 다양한 관계로 임의로 문헌논문, 실험논문, 임상논문의 세 종류로 분류하였다^{6,7)}.

문헌논문은 논문의 내용이 문헌을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기술한 논문, 실험논문은 사람이 외의 동물이나 기타의 생물을 대상으로 실험하여 나타난 결과를 발표한 논문, 임상논문은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하였거나 치료경과를 발표한 논문으로 구분하였다⁷⁾.

모든 논문을 종류별, 학교별, 연도별로 분류하여 저자, 논문내용, 사용처방, 페이지, 참고문헌 등을 조사연구하였다.

실험논문은 연도별, 학교별, 내용별로 실험군, 실험시간, 질병유발종류, 통계처리방법을

조사연구하였고, 임상논문은 임상유형, 연도별, 학교별로 분류하여 관찰대상, 관찰기간 등을 조사연구하였으며, 문헌논문은 연도별, 학교별, 질환별로 분류하였다.

내용분류의 경우 통계적인 기법의 자료통합 목적이 아닌 세부적 내용에 대한 학문흐름의 고찰을 위한 것이므로 될 수 있는 한 연구내용을 임의로 통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 조사의 제한점으로 첫째, 분류항목 설정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어 동일한 학회지를 대상으로 한 경향조사에서 개인의 편차가 있을 수 있고, 한방소아과학 교과서의 목차와 같이 좀 더 공론화 된 항목을 분류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이 연구의 목적과 상반되는 점이 많아서 직접적으로 이용되지는 못하였다.

둘째, 각 논문을 분류하는데 있어서 주관성이 상당히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조사에서 주요어를 사용하여 분류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판단 기준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많은 주관성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III. 결 과

1. 연도별 논문분류

표 1. 연도별 논문분류

		86	87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전체
논문 분류	문헌	3	7	8	8	7	10	9	9	9	6	5	1	10	2	5	4	103
	실험	3			2	2	2	2	5	3	5	5	6	1	8	3	4	51
	임상	2		1	1	1		1		1	5	3	8	11	13	23	20	90
전체	8	7	9	11	10	12	112	14	13	16	13	15	22	23	31	28	244	

연구의 조사대상 논문편수는 244편으로 문헌 논문이 103편(42.2%) 실험논문이 51편(20.9%) 임상논문이 90편(36.9%) 발표되었다. 1999년 이후 매년 2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2001년 31편으로 가장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논문분류별 비율로는 1987년에는 7편 모두가 문헌논문, 1998년 15편의 논문 중 실험논문이 6편(40.4%), 2001년 28편의 논문 중 임상논문이 20편(71.4%)으로 다빈도를 나타냈다.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한 학교는 경희대 89편(36.5%), 동국대 66편(27%), 원광대 30편(12.3%), 대전대 27편(11.1%), 경산대 9편(3.7%), 동의대 9편(3.7%), 기타 14편(5.7%)으로 나타났다. 기타에는 동서한방병원 4편, 우석대 1편, 일반한의원을 기록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1986년에 수록된 논문은 학교명을 기록하지 않아 기타로 처리하였다.

3. 연도별 논문내용

2. 연도별 학교별 논문분류

표 2. 연도별 학교별 분류

	연도																전체	
	86	87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학교	경희	1	5	6	5	6	7	7	8	5	5	4	4	6	5	7	8	89
	원광			2		1	3	1	2	1	2	1	2	4	3	5	3	30
	동국		1		1			2	2	5	7	6	8	8	8	10	8	66
	대전			1	3	1	1	2	2	1	2	2		2	4	3	3	27
	경산		1		2	2	1			1							2	9
	동의												2	2	3	2	9	
	기타	7										1		1	3	2	14	
전체		8	7	9	11	10	12	112	14	13	16	13	15	22	23	31	28	244

표 3. 연도별 논문내용

논문내용	연도																전체
	86	87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병증	2	7	7	7	6	9	6	7	7	5	5		4	1	3	4	80
처방	3			2	2	3	2	5	2	3	5	6	1	5	5	3	47
약물				1			2		1	2		1		3	2	2	14
임상관찰	2				1		1				3	3	7	8	8	7	40
통계										1		1	2	1	5	4	14
치험례			1						1	1		2	4	4	4	7	24
이론							1	2	2	1			4	1			11
진단					1					1					3	1	6
침구			1	1						2		1			1		6
기타												1					2
전체	8	7	9	11	10	12	112	14	13	16	13	15	22	23	31	28	244

* 기타: 국내 시판중인 이유식의 실태연구, 국내시판중인 일반조제분유와 특수분유의 특성과 실태연구

논문의 내용별 분류에 따르면 병증 80편 (32.8%), 처방 47편(19.3%), 임상관찰 40편(16.4%), 치험례 24편(9.8%), 약물 14편(5.7%), 통계 14편 (5.7%), 이론 11편(4.5%), 진단 6편 (2.5%), 침구 6편(2.5%), 기타 2편(1%)으로 나타났다.

이 분류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논문은 기타 (시판중인 이유식과 분유에 관한 논문)로 처리 하였다.

4. 분류대상별 평균 페이지수

표 4. 논문분류별 페이지수

논문분류	N	평균	최대값	최소값	중위수
문헌	103	16.88	76	4	14.00
실험	51	20.04	40	6	20.00
임상	90	12.72	38	4	12.00
합계	244	16.01	76	4	14.00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에 수록된 논문의 평균 페이지수는 16.01페이지, 실험논문 20.04페이지, 문헌논문 16.88페이지, 임상논문 12.72페이지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긴 논문은 76페이지, 가장 작은 논문은 4페이지로 나타났다.

5. 분류대상별 저자

논문저자의 경우 2인 115편(47.1%), 3인 72편(29.5%), 4인 29편(11.9%), 1인 23편(9.4%), 5인 4편(1.6%), 8인 1편(0.4%) 순으로 나타났다.

문헌논문의 경우 2인 57편(53.5%), 3인 23편(22.3%), 4인 15편(14.6%) 순으로, 실험논문의 경우 2인 22편(43.2%), 3인 22편(43.2%), 1인 5편(9.8%) 순으로, 임상논문의 경우 2인

36편(40.0%), 3인 27편(30.0%), 4인 12편 (13.3%), 1인 12편(13.3%)으로 나타났다.

6. 논문분류별 참고문헌

표 5. 논문분류별 저자

논문분류	논문저자수						전체
	1	2	3	4	5	8	
문헌	6	57	23	15	2		103
실험	5	22	22	2			51
임상	12	36	27	12	2	1	90
합계	23	115	72	29	4	1	244

표 6. 논문분류별 참고문헌

논문분류	N	평균	최대값	최소값	중위수
문헌	103	36.78	141	11	32.00
실험	51	58.10	111	13	56.00
임상	90	23.09	81	3	18.00
합계	244	36.18	141	3	31.00

논문에 인용된 참고문헌 수는 평균 36.18개, 그 중 실험논문 평균 58.10개, 문헌논문 36.78개, 임상논문 23.18개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많은 참고문헌은 141개, 가장 적은 참고문헌이 3개로 나타났다.

문헌논문 2편(2%) 순으로 나타났고, 사용처방은 총 40종, 실험논문 32종, 임상논문 11종, 문헌논문 2종으로 나타났다.

중복되지 않은 처방은 기타로 처리하였다.

8. 논문분류별 단방

7. 논문대상별 처방

표 7. 논문대상별 처방

사용처방	논문종류			전체
	문헌	실험	임상	
형개연교탕		2	3	5
보아탕		4		4
오황포룡환		3		3
인삼양위탕	1	2		3
육미지황탕	1		1	2
보양성장탕		1	1	2
보중익기탕		2		2
시평탕		1	1	2
기타처방		25	7	32
전체	2	40	13	55

* 기타

실험논문 : 비아환, 용담사간탕, 주귀음, 지유탕, 황기탕, 탁리소독음, 전씨백출산, 진경운담탕, 보제소독음, 양심탕, 청폐산, 가미통규탕, 대방풍탕, 산풍단, 청폐사간탕, 청기산, 치료산, 삼출건비탕, 사군자탕, 소아보혈탕, 소아안신탕, 귀용탕, 생혜탕, 생진감로탕

임상논문 : 보폐정전탕, 활혈성장탕, 익위승양탕, 열다한소탕, 선방패독산, 생진감로탕, 내소화중탕

논문내용중 처방에 관한 논문은 총 55편으로 실험논문 40편(72.7%), 임상논문 13편(23.6%),

표 8. 논문분류별 단방

단방	논문종류			전체
	문헌	실험	임상	
녹용		2	1	3
마두령	1	1		2
천초, 산초		1		1
웅담		1		1
강활		1		1
마황근			1	1
해조, 하수오		1		1
행인		1		1
전체	1	8	2	11

논문내용 중 약물에 관한 논문은 총 11편으로 실험논문 8편(72.7%), 임상논문 2편(18.2%), 문헌논문 1편(9.1%)순으로 나타났고, 사용약물은 총 8종, 실험논문 7종, 임상논문 2종, 문헌논문 1종으로 나타났다.

기능 13편(5.3%), 비염, 성장 각 12편(4.9%), 알레르기 11편(4.5%), 경련, 설사, 아토피 각 10편(4.1%), 지능, 천식, 야뇨 각 9편(3.7%), 복통 8편(3.3%), 주소증, 해수, 신경질환, 허약아 각 7편(2.9%), 비만 6편(2.5%), 처방약물, 발열, 처방약물 각 5편(2.0%), 중이염 4편(1.6%)으로 나타났다.

9. 연도별 세부내용

3편이하의 논문세부내용은 기타로 처리하였

논문세부내용으로 총 244편의 논문중 면역 다.

표 9. 연도별 세부내용

세부내용	연도																전체	
	86	87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면역	1					1		2		1	1	1	1	4	1		13	
비염										1		1	3	2	2	1	12	
성장										1	1	3	1		3	3	12	
알레르기				1	2	1	1	2		1		2		1			11	
경련				1	1	1	1	1	1			2		2			10	
아토피								1	1	1				1	3	2	1	10
설사	1	1	1	1	1			2			1		1			1	10	
지능								3					3	1	1	1	9	
천식	2	2						2	1	1							9	
야뇨		1	1	1	1	1	1		1		1				1		9	
복통		1		1	1				1	1							8	
주소증										1		1			3	2	7	
해수						1	1			1		1	1	1		1	7	
신경이상										1		1	1	1	1	2	7	
허약아				1	2										1	1	7	
비만				1								1			3	1	6	
발열						1			1			1		2			5	
야제		1	1								1		1				4	
중이염													1		2	1	4	
처방약물				2		1						1			1		5	
기타	4	1	3	2	4	4	4	4	7	7	5	3	6	6	9	10	79	
전체	8	7	9	11	10	12	12	14	13	16	13	15	22	23	31	28	244	

* 기타 : 식욕부진, 소아정신치료, 자반증, 언어장애, 감모, 감증, 변비, 당뇨, 실혈, 체질, 스트레스, 한증, 심신증, 태열, 틱장애, 한약용량, 한약재형, 할지요법, 고혈압, 구완와사, 두통, 분유, 이유식, 서병, 중국소아과고찰, 소아진단, 슬관절통, 체형장애, 아로마, 오장열, 요각통, 요충감염, 위궤양, 유아, 음낭수종, 자폐장애, 주의력결핍, 중풍, 추나, 혈관종, 향응고, 육아법, 수분소실, 간질환, 체이, 사시

10. 학교별 세부내용

표 10. 학교별 세부내용

세부내용	학교							전체
	경희	원광	동국	대전	경산	동의	기타	
면역	1	3	3	5			1	13
비염	1	8	1	2				12
성장	6		3	1			2	12
알레르기	7	3			1			11
경련	6		1	2	1			10
아토피	4	1	2	2				10
설사	3	1	2	2	1		1	10
지능	4		5					9
천식	2	1	2	2			2	9
야뇨	6		2		1			9
복통	4		1	1		2		8
주소증	1		3	1		1	1	7
해수	3		3			1		7
신경이상	4		1	1		1		7
허약아	3				1	2	1	7
비만	4	2						6
발열	1	1	2	1				5
야제	2		1	1				4
중이염		4						4
처방약물	3		1				1	5
기타	24	6	33	6	4	1	5	79
전체	89	30	66	27	9	9	14	244

다빈도 세부내용별로 경희대 알레르기 7편 (경희대 발표논문의 7.9%), 원광대 비염 8편 (26.7%), 동국대 지능 5편(7.6%), 대전대 면역기능 5편(18.5%)을 발표하였다.

세부내용별 동국대 42종, 경희대 37종, 대전대 17종, 원광대 15종, 경산대 9종, 동의대 7종 논문을 발표하였다.

11. 실험논문

(10.2%)으로 동물실험을 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 연도별 실험동물

표 11-1) 연도별 실험동물

실험동물	연도												전체		
	86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흰쥐	1	1	1			1	1	1	3	3	1	2	1	1	17
생쥐	1			2	1	4	2	2	2	1		4	2	1	22
흰쥐와 생쥐	1	1	1		1			2						1	7
토끼										1		1			2
돼지										1					1
전체	3	2	2	2	2	5	3	5	5	6	1	7	3	3	49

실험논문 51편중 동물을 사용한 논문이 49편(96.1%)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편(3.9%)은 세포검사와 태반에 관한 검사 2편이었다.

사용된 동물로 생쥐 22편(44.9%), 흰쥐 17편(34.7%), 생쥐와 흰쥐 7편(14.3%), 토끼 2편(4.1%), 돼지 1편(2.0%)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2000년 7편(14.3%), 1998년 6편(12.2%), 1994년, 1996년, 1997년 각 5편

2) 연도별 세부내용 분류

세부내용으로는 면역질환 13편(25.5%), 알레르기 10편(19.6%), 진통해열 4편(7.8%), 경련 3편(5.9%), 비만, 근육이상, 간질환, 처방약물 각 2편(7.9%), 나머지 각 1편(2.0%)으로 나타났다. 총 18종의 세부내용에 관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표 11-2) 연도별 실험논문 세부내용

세부내용	86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전체
면역	1			1		2		1	1	1	1	4	1		13
성장										1				2	3
알레르기		1	2	1	1	2		1		2					10
경련						1	1		1						3
지능													1		1
신경이상								1							1
비만													1	1	2
발열												1			1
처방약물										1					2
기타	2				1		2	2	3	1		3		1	15
전체	3	2	2	2	2	5	3	5	5	6	1	7	3	3	49

* 기타: 근육이상, 당뇨, 스트레스, 고혈압, 위궤양, 항응고, 수분소실, 간질환, 진통해열

3) 학교별 세부내용 분류

4) 실험군 분류

표 11-3) 학교별 실험논문 세부내용

세부내용	학교						전체
	경희	원광	동국	대전	경산	기타	
면역	1	3	3	5		1	13
성장	2					1	3
알레르기	7	2			1		10
경련	2			1			3
지능			1				1
신경이상	1						1
비만	2						2
발열	1						1
처방약물	1		1				2
기타	3	1	6	2	1	2	15
전체	20	6	11	8	2	4	51

실험논문 다빈도 세부내용별로 경희대 알레르기 7편(경희대 실험논문 중 35.0%), 원광대 면역 3편(50.0%), 동국대 면역 3편(27.3%), 대전대 면역 5편(62.5%)을 발표하였다.

실험논문의 실험대상으로 삼은 실험군의 숫자는 평균 7.53마리, 총 51편의 논문중 6편은 기재되지 않았다. 비만, 발열, 진통해열 각 10마리, 알레르기 9.89마리, 경련 8.67마리, 신경

표 11-4) 실험논문 세부내용별 실험군

세부내용	N	평균	최대값	최소값	중위수
면역	12	6.17	10	5	7.00
성장	2	5.50	6	5	5.50
알레르기	9	9.89	14	7	10.00
경련	3	8.67	10	8	8.00
지능	1	12.00	12	12	12.00
신경이상	1	8.00	8	8	8.00
비만	1	10.00	10	10	10.00
발열	1	10.00	10	10	10.00
처방약물	2	5.50	6	5	5.50
기타	13	6.77	10	3	6.00
합계	45	7.53	14	3	7.00

이상 8마리, 면역 6.17마리, 성장과 처방약물 5.50마리가 사용되었다. 가장 많은 경우 14마리의 실험군이 사용되었고, 가장 적은 경우 3마리의 실험군이 사용되었다.

평균적으로 14.54일의 실험기간이 소요되었고, 비만 56일, 성장 24.5일, 발열 14일, 면역 11.17일, 알레르기 8일, 처방약물 4일로 나타났다.

5) 증상별 실험기간 분류

표 11-5) 실험논문 세부내용별 실험기간

세부내용	N	평균	최대값	최소값	중위수
면역	12	11.17	18	5	12.00
성장	2	24.50	28	21	24.50
알레르기	2	8.00	14	2	8.00
지능	1	10.00	10	10	10.00
비만	1	56.00	56	56	56.00
발열	1	14.00	14	14	14.00
처방약물	1	4.00	4	4	4.00
기타	8	15.50	28	7	15.00
합계	28	14.54	56	2	14.00

51편의 논문중 28편이 하루 이상의 실험기간이 소요되었고, 23편은 실험기간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하루 이하의 실험기간이 소요된 논문이었다.

6) 질병유발

51편의 논문중 실험을 위하여 질병유발을 유도한 논문은 38편(74.5%)으로 면역기능저하

표 11-6) 연도별 실험논문 질병유발

유발질환	연도												전체		
	86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면역기능저하	1				1	2		1	1	3	1				10
알레르기		1	2	2	1	2		1							10
경련						1	1	1	1						4
통증	1	1					1		1						4
당뇨								1	1						3
스트레스												1		1	2
간중독									1						1
근위축												1			1
부종								1							1
비만													1		1
흑색종												1			1
전체	2	2	2	2	2	5	2	5	5	4	1	3	1	2	38

와 알레르기를 유발시킨 논문이 각 10편 (26.3%), 경련, 통증 각 4편(10.5%), 당뇨 3편 (7.9%), 스트레스 2편(5.3%), 간중독, 근위축, 부종, 비만, 흑색종 각 1편(2.6%)으로 나타났다.

test 4편(16.7%), Anova test, Scheffé's test, Chisquare test, Unfaired test, Mann-whitney U test 각 2편(8.3%), Dunnett's test 1편(4.2%)으로 나타났다.

12. 임상논문

7) 연도별통계처리

표 12-7) 연도별 실험논문 통계처리

통계처리 방식	연도								전체
	95	96	97	98	99	00	01	02	
Student's t-test	1	1	2			3	1	1	9
Anova test						1		1	2
Ducan test				2	1	1			4
Scheffe's test				2					2
Unfaired t-test		1		1					2
Chi square test		1	1						2
Mann-whitney U test							2		2
Dunnett's test						1			1
전체	1	3	3	5	1	6	3	2	24

51편의 논문중 통계처리방식을 기록한 논문은 24편으로 1994년 이전에는 모든 실험논문이 통계방식을 기재하지 않았고, 1995년 이후의 실험논문 35편중 24편이 통계처리를 기재하였다. Student's t-test 9편(37.5%), Ducan

1) 연도별 임상논문내용

90편의 임상논문 중 환자조사에 관한 논문 31편(34.4%), 증례보고 26편(28.8%), 개입연구 21편(23.3%), 통계처리 12편(13.3%)으로 나타났다.

표 12-1) 연도별 임상논문유형

임상논문유형	연도												전체	
	86	89	90	91	93	95	96	97	98	99	00	01		02
환자조사	2		1		1		2	3	2	6	5	4	5	31
증례보고		1		1		1	1		3	4	4	4	7	26
개입연구							1		2	1	3	10	4	21
통계처리							1		1		1	5	4	12
전체	2	1	1	1	1	1	5	3	8	11	13	23	20	90

연도별로 2001년 23편(25.6%), 2002년 20편(22.2%), 2000년 13편(14.4%), 1999년 11편(12.2%), 1998년 8편(8.9%) 등으로 나타났다. 87년, 92년에는 임상논문이 발표되지 않았다.

2) 학교별 임상논문유형

고, 개입연구 각 6편(26.1%), 대전대 환자조사 3편(50.0%), 경산대 증례보고 2편(66.7%), 동의대 환자조사 5편(71.4%)으로 나타났다.

3) 임상논문유형별 관찰대상별 분류

임상논문의 관찰대상은 평균 123.69명이었고, 통계처리유형이 647.50명, 환자조사 75.19

표 12-2) 학교별 임상논문유형

임상논문유형	학교							전체
	경희	원광	동국	대전	경산	동의	기타	
환자조사	9	6	6	3	1	5	1	31
증례보고	10	5	6	1	2	1	1	26
개입연구	7	5	6	1			2	21
통계처리	2		5	1		1	3	12
전체	28	16	23	6	3	7	7	90

90편의 임상논문 중 경희대가 28편(31.3%), 동국대 23편(25.6%), 원광대 16편(17.8%), 동의대 7편(7.8%), 대전대 6편(6.7%)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경희대는 증례보고 10편(경희대에서 발표한 임상논문의 35.7%), 원광대는 환자조사 6편(37.5%), 동국대는 환자조사, 증례보

고, 개입연구 43.50명, 증례보고 4.3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관찰대상은 2227명이었고, 1명을 대상으로 한 증례보고 형식도 15편이나 되었다.

표 12-3) 임상논문유형별 관찰대상

임상논문유형	N	평균	최대값	최소값	중위수
환자조사	31	75.19	311	12	50.00
증례보고	26	4.38	20	1	1.00
통계처리	21	43.67	165	7	34.00
지능	12	647.50	2227	30	289.50
합계	90	123.69	2227	1	34.50

4) 임상내용별 관찰기간 분류

표 12-4) 임상유형별 관찰기간

임상유형	N	평균	최대값	최소값	중위수
환자조사	29	11.31	48	1	8.00
증례보고	7	19.00	48	5	12.00
통계처리	20	10.00	26	1	9.00
지능	9	9.89	12	2	12.00
합계	65	11.54	48	1	11.00

임상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논문은 90편 중 65편(72.2%)이었고, 25편의 논문은 소수의 증례보고 형식으로 관찰기간을 추정할 수 없었다.

평균 관찰기간은 11.54개월이었고, 증례보고 19개월, 환자조사 11.31개월, 개입연구 10개월

통계처리 9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긴 관찰기간은 48개월, 가장 짧은 관찰기간은 1개월로 나타났다.

5) 임상논문유형별 세부내용 분류

표 12-5) 임상논문유형별 세부내용

세부내용	임상유형				전체
	환자조사	증례보고	개입연구	통계처리	
비염	5	3			8
성장	3	1	2		5
알레르기	1				1
경련		2			2
야토피	2		4		6
설사	1	1			2
지능		1			1
천식	2				2
야뇨	2		1		3
복통	2		1		3
주소증				7	7
해수	2		1		3
신경이상	1	5			6
허약아	3			1	4
비만	1		2		3
발열		1	1		2
야제	1				1
중이염			4		4
처방약물			1		1
기타	6	12	4	4	26
전체	31	26	21	12	90

* 기타 : 식욕부진, 근육계이상, 자반증, 언어장애, 감모, 변비, 실혈, 체질, 한증, 턱장애, 할지요법, 고혈압, 구안와사, 두통, 슬관절통, 체형장애, 요각통, 요충감염, 음낭수종, 자폐장애, 중풍, 혈관종

임상논문 90편 중 비염 8편(8.9%), 주소증 7편(7.8%), 아토피와 신경계이상 각 6편(6.7%), 성장 5편(5.6%), 허약아 4편(4.4%), 복통, 해수, 비만 각 3편(3.3%), 경련, 설사, 천식, 발열 각 2편(2.2%), 지능, 약제, 처방약물 각 1편(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조사의 경우 비염 5편(환자조사 논문의 16.1%), 증례보고는 신경계이상 5편(19.2%), 개입연구는 아토피와 중이염 각 4편(9.7%), 통계처리는 주소증 7편(58.3%)으로 나타났다.

6) 학교별 세부내용

표 12-6) 학교별 임상논문 세부내용

세부내용	학교							전체
	경희	원광	동국	대전	경산	동의	기타	
비염		7		1				8
성장	2		2				1	5
알레르기		1						1
경련	2							2
아토피	3	1	1	1				6
설사		1	1					2
지능	1							1
천식				1			1	2
약노	2		1					3
복통	1					2		3
주소증	1		3	1		1	1	7
해수	1		1			1		3
신경이상	3		1	1		1		6
허약아	1					2	1	4
비만	2	1						3
발열			2					2
약제				1				1
중이염		4						4
처방약물							1	1
기타	9	1	11		3		2	26
전체	28	16	23	6	3	7	7	90

임상논문 90편 중 경희대가 20가지 세부내용으로 28편, 동국대 17가지 세부내용으로 23편, 원광대 7가지 세부내용으로 16편, 대전대 6가지 세부내용으로 6편, 경산대 3가지 세부내용으로 3편, 동의대 6가지 세부내용으로 7편을 발표하였다.

빈도수로는 경희대 아토피 3편(경희대 임상논문 중 10.7%), 원광대 비염 7편(43.8%), 동국대 주소증 3편(13.0%), 대전대, 경산대는 각 주제별로 한편씩, 동의대 허약아 2편(28.6%)으로 많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7) 연도별 질환

표 12-7) 연도별 임상논문 세부내용

세부내용	연도													전체
	86	89	90	91	93	95	96	97	98	99	00	01	02	
비염									1	3	2	2		8
성장									2			2	1	5
알레르기											1			1
경련										2				2
아토피										1	2	2	1	6
설사								1					1	2
지능													1	1
천식	1												1	2
야뇨			1		1							1		3
복통												1	2	3
주소증							1		1			3	2	7
해수									1	1	1			3
신경이상									1	1	1	1	2	6
허약아											2	1	1	4
비만								1				2		3
발열									1		1			2
야제										1				1
중이염										1		2	1	4
처방약물												1		1
기타	1	1		1		1	4	1	1	1	3	5	7	26
전체	2	1	1	1	1	1	5	3	8	11	13	23	20	90

2001년 주소증에 관한 논문이 3편, 2003년도에 비염에 관한 논문이 3편이 발표된 것이 외에는 연도별로는 고른 분포를 보였다.

13. 문헌논문

1) 연도별 증상 또는 질환

문헌논문 중 설사에 관한 논문 8편(7.8%), 지능과 천식 각 7편(6.8%), 야뇨 6편(5.8%), 경련, 복통 각 5편(4.9%), 비염, 성장, 아토피, 해

수 각 4편(3.9%), 허약아, 야제 각 3편(2.9%), 발열, 처방약물 각 2편(1.9%), 비만 1편(1.0%) 순으로 나타났다. 총 45종의 세부내용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표 13-1) 연도별 문헌논문 세부내용

세부내용	연도															전체	
	86	87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비염			1			1				1						1	4
성장										1	1		1		1		4
경련				1	1	1	1					1					5
아토피								1	1	1					1		4
설사	1	1	1	1	1			2					1				8
지능								3					3	1			7
천식	1	2						2	1	1							7
야뇨		1	1		1	1			1		1						6
복통		1		1	1				1	1							5
해수						1	1			1						1	4
허약아			1	2													3
비만			1														2
발열						1			1								3
야제		1	1									1					4
처방약물				1		1											3
기타	1	1	2	2	3	4	3	4	1	1	1	1	5		4	2	38
전체	3	7	8	8	7	10	9	9	5	6	5	1	10	2	5	4	103

* 기타 : 식욕부진, 소아정신치료, 자반증, 언어장애, 감모, 감증, 변비, 실혈, 한증, 심신증, 태열, 한약 용량, 한약제형, 분유, 이유식, 서병, 중국소아과조사, 소아진단, 아로마, 오장열, 자폐장애, 주력결핍, 추나, 항응고, 육아법, 체이, 사시

2) 학교별 질환 분류

표 13-2) 학교별 문헌논문 세부내용

세부내용	학교							전체
	경희	원광	동국	대전	경산	동의	기타	
비염	1	1	1	1				4
성장	2		1	1				4
경련	2		1	1	1			5
아토피	1		1	1		1		4
설사	3		1	2	1		1	8
지능	3		4					7
천식	2	1	2	1			1	7
야뇨	4		1		1			6
복통	3		1	1				5
해수	2		2					4
허약아	2				1			3
비만								2
발열				1				3
야제	2		1					4
처방약물	2							3
기타	12	4	16	4		1	1	38
전체	41	8	32	13	4	2	3	103

문헌논문 103편의 논문 중 경희대 41편 (39.8%), 동국대 32편(31.3%), 대전대 13편 (12.6%), 원광대 8편(7.8%), 경산대 4편(3.9%), 동의대 2편(1.9%) 순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수는 경희대 야뇨 4편(경희대 문헌 논문의 9.8%), 동국대 지능 4편(12.5%), 경산대 설사 2편(15.4%) 나머지는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IV. 고 찰

연구논문이란 해당 학문영역에 관련된 학문적 주제와 문제에 관하여 일정시간 동안 일정

경비와 노력을 투입해 새로운 사실을 논리정연 하면서 분명한 체계를 세워 문장으로 발표한 글이라 할 수 있는데 연구자의 의견, 판단, 가치가 진술되어 있어야 하며 독자들에게 분명히 전달될 수 있게 일정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논문에는 연구의 주제나 연구방법, 또는 연구결과가 이미 보고된 바와 다르거나 새로운 이론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등 창의성과 창작성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⁸⁾.

연구논문은 연구방법에 따라 기초, 응용, 개발 분야로, 또는 문헌논문과 관찰논문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연구의 일정 유형에 따라 과거에 대한 역사적 연구, 상태 그대로를 기술하고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 실험과정을 통한 실험 연구, 문헌들로부터 결과를 도출하는 문헌연구, 연구 대상의 실태를 밝히기 위한 조사연구

구,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현장연구 등이 있다⁸⁾.

특히 의학연구는 일반적으로 연구목적, 실험유무, 시간적 순서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연구목적에 따라 기술연구(descriptive study), 분석연구(analytic study), 과정연구(progress research)로 분류되고, 실험유무에 따라 실험적 연구(experimental study)와 비실험적 연구(non-experimental study)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단면적 연구(cross-sectional study)와 추적연구(longitudinal study)로 분류된다⁹⁾.

의학연구는 그 대상이 인간의 건강과 질병이라는 점에서 과학성과 함께 윤리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특징을 가지고, 의학연구를 통한 의학지식의 발전은 새로운 의학지식과 의술을 개발함으로써 결국 건강유지를 시키는 역할을 해야하기 때문에⁹⁾, 과학의 어느 다른 분야에서 보다 연구방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문제의 제기, 정보의 수집, 가설설정, 실험방법 연구대상의 설정, 자료수집, 결과의 분석, 가설검증 및 해석, 결론의 유도까지 타당한 연구방법의 설계와 적절한 통계방법의 적용은 논문본질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³⁾.

한방소아과학은 태생기로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성장 발달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자라서 훌륭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연령에 따른 건강의 표준을 강구하고 소아 특유의 생리병리를 연구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질병의 예방과 치료방법을 연구하며 특히 동의학적인 섭생법을 연구 검토하는 학문이다⁵⁾.

대한한방소아과학회는 1975년 창립 이래 한방소아과학의 임상 및 연구 분야에 있어 선도

적인 역할을 하여 왔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며, 1986년에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를 창간하여 지금까지 통권 제 17호를 발간하였고 이는 국내 한방소아과학의 시대흐름을 반영하는 연구결과가 기록된 자료라 할 수 있다.

1986년부터 2002년까지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에 실린 논문은 단순투고 형식의 글을 제외하면 모두 244편이며, 그 중 문헌논문이 103편(42.2%)으로 가장 많았고, 임상논문이 90편(36.9%), 실험논문이 51편(20.9%) 발표되었다. 1999년 이후부터 매년 20편 이상의 논문이 발표되었고 1996년부터 2002년까지 104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전체논문의 43%를 차지하였으며, 31편이 발표된 2001년 가장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이전까지 전체 125편 중 81편(65%)으로 문헌논문이, 1997년 이후 전체 119편 중 75편(63%)으로 임상논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임상논문은 2001년 23편(74.2%), 2002년 20편(71.4%)으로 2001년 이후 총 발표논문 59편 중 43편으로 73%를 차지하며 반하여 문헌논문은 1998년 1편(6.7%), 2000년 2편(8.7%)이 발표되어 1997년 이후 문헌에 대한 연구보다 임상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에 수록된 학교별 논문발표를 보면 경희대 89편(36.5%), 동국대 66편(27%), 원광대 30편(12.3%), 대전대 27편(11.1%), 경산대 9편(3.7%), 동의대 9편(3.7%), 우석대 1편(0.4%)으로 나타났다.

전체 논문 중 경희대, 동국대, 원광대, 대전대의 논문이 244편 중 212편으로 전체의 87%의 비중을 차지해 논문의 학교별 편중 현상을 보였다. 1995년 이전까지 96편의 논문 중 50편(52%)을 경희대가 발표하여 가장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친 것으로 보였으나, 1996년 이후부터 총 148편의 논문 중 동국대가 55편(37%)을 발표하여 39편(26%)을 발표한 경희대보다 활발한 연구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도별 학교별 논문편수를 보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1999년 이후 이런 양상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이것은 한방소아과학의 관심도가 증가한 것 이외에 한방소아과를 전문 과목으로 인정한 한방전문의제도(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¹²⁾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1998년부터 임상논문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이유로 임상에 관한 관심도와 증거의학을 기초로 한 한의학의 발달 등을 들 수 있으나 전문수련과정 중 연차별 1편 이상의 임상논문을 발표해야 하는 소아과 전문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이 가장 큰 원인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논문의 내용을 저자 임의로 병증, 처방, 약물, 임상관찰, 통계, 치험례, 이론, 진단, 침구, 기타로 분류하여 보았다.

분류기준으로 병증은 하나의 병증을 설정하고 거기에 따른 원인이나 병리, 치료법 등을 설명한 논문을, 처방은 처방에 대한 문헌내용이나 임상적 효능, 실험적 효과를 연구한 논문을, 임상관찰은 한가지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 대해 관찰한 논문을, 치험례는 소수의 환자에 대한 임상관찰논문을, 통계논문은 병원을 내원한 환자에 대한 통계조사 논문을, 이론은 특별한 병증이 아닌 한의학 이론에 대한 논문을, 진단은 진단방법에 관한 논문을, 침구는 침구 치료나 물리치료에 관한 논문을, 기타는 이 분류에 포함하기 어려운 논문으로 구별하여 분류하였다.

전체적으로 병증에 관하여 설명한 논문이 80편(32.8%)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

고, 처방에 관한 논문이 47편(19.3%), 임상관찰논문이 40편(16.4%), 치험례를 발표한 논문이 24편(9.8%) 순으로 나타났다.

논문분류별로 보면 문헌논문의 경우 병증에 대한 논문이 80편(77.2%), 한의학 이론에 관한 논문이 11편(10.7%) 순으로 특정 병증에 관한 문헌고찰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실험논문의 경우 처방을 주제로 실험한 논문이 40편(78.4%), 단방약물을 주제로 실험한 논문이 11편(21.6%)으로 처방과 약물 이외의 실험 논문이 한편도 발표되지 않아 좀 더 다양한 방식의 실험연구가 다소 아쉬웠다. 임상논문의 경우 임상관찰이 40편(44.4%)으로 가장 많았고, 치험례를 발표한 논문이 24편(26.7%), 내원한 환자의 주소증을 통계 처리한 논문이 12편(13.3%)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단이나 침구에 관한 임상연구는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소아과 특성상 치료방법이 대부분 처방과 약물 위주의 치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침구치료와 관련된 논문은 '저주파자극치료기의 한의학적 이용방법 연구'(제10권 1호), '발통점을 이용한 두통 치험례 보고'(제12권 1호), '조위승청탕과 배수혈 침구요법을 통한 비만환자 66례의 임상적 보고'(제15권 2호)가 있었고, 진단방법에 관하여 '허약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설진에 대한 임상적 고찰'(제15권 2호), '허약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임상적 특징과 진단방법에 관한 연구'(제16권 2호), '소아의 사상체질별 질병 및 증상유형의 차이'(제16권 2호)가 있었다.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에 수록된 논문 평균 페이지수는 16.01페이지, 그 중 실험논문이 20.04페이지로 가장 많았고, 문헌논문이 16.88페이지, 임상논문이 12.72페이지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소아과학의 사적 고찰'(제13권 1호)

이 76페이지로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였고, '소아언어장애 치료 28례의 임상보고'(제11권 1호) 이외 4편이 4페이지로 가장 적은 페이지를 차지하였다.

논문저자의 경우 2인이 115편(47.1%)로 가장 많았고, 3인 72편(29.5%), 4인 29편(11.9%), 1인 23편(9.4%)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문헌논문의 경우 2인 저자가 57명으로 전체 문헌논문의 55.3%를 차지하였다. '알레르기 환자의 흥취 체질 분석'(제 14권 2호)의 경우 8명이 공동저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논문에 인용된 참고 문헌수는 전체적으로 36.18종, 그 중 실험논문이 58.10종, 문헌논문이 36.78종, 임상논문 23.18종으로 나타나 비교적 실험논문에 참고문헌이 많이 인용되었고, 문헌논문, 임상논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아의 한약용량과 복용에 관한 문헌적 고찰'(제8권 1호)은 가장 많은 141종의 참고문헌을 인용하였고, '한방성장촉진제에 관한 이상보고'(제 15권 1호)는 가장 적은 3종의 참고문헌을 인용하였다.

처방을 연구주제로 사용한 논문은 총 244편의 논문 중 55편(총 논문의 22.5%)으로 총 40종의 처방을 사용하였고, 그 중 실험논문은 40편(72.7%), 임상논문 13편(23.6%), 문헌논문 2편(2%)으로 나타났다. 실험논문은 보아탕과 우황포룡환에 관한 논문이 각 4편, 임상논문은 형개연교탕을 이용한 논문이 3편으로 논문별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전체적으로는 형개연교탕에 관한 논문이 5편으로 가장 많았다. 처방을 주제로 한 문헌논문 2편은 인삼양위탕과 육미지황탕에 관한 연구였다. 실험논문이 총 32종의 처방을, 임상논문의 경우 11종의 처방을 연구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 처방에 관한 임상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임상논문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방약물을 주제로 한 연구의 경우 11편(총 논문의 4.5%)의 논문에 8가지의 약물을 연구 주제로 사용하였다. 녹용에 관한 논문이 3편(실험논문 2편, 임상논문 1편)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마두령에 대한 논문이 2편(문헌논문 1편, 임상논문 1편), 나머지가 각각 1편으로 나타났다. 실험논문의 경우 다양한 분포를 가지고 있었으나, 임상논문의 경우 녹용과 마황근에 대한 임상연구만이 발표되어 약물 역시도 임상논문의 다양성이 아쉬웠다.

논문세부내용으로는 면역기능에 관한 논문이 13편, 비염과 성장에 관한 논문이 각 12편, 알레르기에 관한 논문이 11편, 경련과 설사, 아토피에 관한 논문이 각 10편, 지능, 천식, 야뇨에 관한 논문이 각 9편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998년, 2001년 2002년에 성장에 관한 논문이 각 3편, 1999년에 지능에 관한 논문이 3편, 2000년에 면역기능에 관한 논문이 4편으로 세부내용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다.

연도별 도표를 통해 점차 다양한 내용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었으나 세부내용 중 다빈도 20종의 내용이 전체 244편 중 165편으로 전체논문의 68%를 차지하여 아직도 다빈도 질환에 대한 연구편중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논문은 면역질환에 관한 논문이 13편으로 가장 많았고, 알레르기에 관한 논문이 10편, 진통해열에 관한 논문이 4편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18가지의 주제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8편의 실험논문이 발표된 2000년에 가장 활발한 실험연구가 행하여졌고, 그 중 4편이 면역기능에 관한 논문이었다. 실험논문 역시 51편의 논문 중 면역질환과 알레르기에 관한 논문이 23편(45%)으로 특정질환에 대한 편중경향을 보였다.

임상논문은 내원한 환자의 주소증을 분류한 논문과 비염에 관한 논문이 각 8편으로 가장 많았고, 아토피와 신경계이상에 관한 논문 6편, 성장에 관한 논문 5편, 허약아에 관한 논문이 4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유형별로는 환자조사의 경우 비염에 관한 논문이 5편, 증례보고의 경우 신경계관련 논문이 5편, 개입연구의 경우 아토피에 관한 논문이 4편으로 세부내용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통계처리의 경우 주소증에 관한 논문이 8편 전부를 차지하였다.

문헌논문은 설사에 관한 논문이 8편으로 가장 많았고, 지능과 천식에 관한 논문이 각 7편, 야뇨에 관한 논문이 6편순으로 나타났으며 세부연구내용이 45종으로 실험논문(18종)과 임상논문(40종)에 비하여 다양한 내용의 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는 전체논문 중 경희대의 경우 알레르기(7편), 원광대는 비염(8편), 동국대는 지능(5편), 대전대는 면역기능(5편)의 연구가 가장 활발하였고, 동국대가 66편 가운데 42종의 주제에 관한 연구로 가장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논문의 경우 경희대는 알레르기에 관한 실험논문이 7편, 원광대와 동국대는 면역에 관한 실험논문이 각 3편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임상논문은 경희대가 20종의 세부내용 중 아토피에 관한 논문이 3편으로 가장 많았고, 동국대는 16종의 세부내용 중 외래환자의 주소증 분석에 관한 논문이 3편, 원광대의 경우 7종의 세부내용 중 중이염에 관한 논문이 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나머지 대학의 경우 고른 분포를 보였다.

문헌논문은 103편의 문헌논문 중 경희대가 41편(39.8%), 동국대 32편(31.3%), 대전대 13

편(12.6%), 원광대 8편(7.8%), 경산대 4편(3.9%) 순으로 나타났고, 세부내용별로 경희대는 야뇨에 관한 문헌논문이 4편, 동국대의 경우 지능에 관한 문헌논문이 4편으로 문헌논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나머지는 고른 분포를 나타냈다.

실험논문 51편 중 동물을 사용한 논문이 49편(96.1%)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세포검사와 태반 검사에 관한 실험 논문이었다. 사용된 동물로는 생쥐를 사용한 경우가 22편(44.9%)으로 가장 많았고, 흰쥐를 사용한 논문이 17편(34.7%), 생쥐와 흰쥐를 같이 사용한 논문이 7편(14.3%), 토끼를 이용한 논문이 2편, 돼지를 사용한 논문이 1편으로 나타났다.

1997년도 이후 생쥐와 흰쥐를 혼합하여 실험한 경우는 1편의 논문 밖에 없었고, '강황이 가토 혈관 평활근의 긴장성 조절에 미치는 영향'(제12권 1호) 외 1편이 토끼를 실험동물로 사용, '한약복합제제의 투여가 돼지의 성장 및 성장호르몬 분비에 미치는 영향'(제12권1호)에서 돼지를 실험동물로 사용한 것 이외 전부 생쥐나 흰쥐를 사용하여 실험동물 선택에 있어 편중된 양상을 보였다.

실험대상으로 삼은 실험군의 숫자는 평균 7.53마리로 나타났고, 총 51편의 논문중 45편(88.2%)이 실험군을 기재하였으며 6편(11.8%)의 경우 실험군을 기재되지 않았다. 발열과 진통해열에 관한 실험에서는 평균 10마리의 실험군이 사용되었고, 간질환에 관한 실험에서는 3마리의 실험군이 사용되었다. '우황포룡환 거용황 주사방 및 생료사물당의 알레르기에 관한 실험적 연구'(제7권 1호)에서 가장 많은 14마리의 실험군이 사용되었고, 가장 적은 경우 3마리의 실험군이 사용되었다.

실험논문 51편의 논문 중 28편(54.9%)이 하루 이상의 실험기간이 소요되었고, 23편

(45.1%)은 실험기간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하루 이하의 실험기간이 소요된 논문이었다. 평균적으로 14.54일의 실험기간이 사용되었고, 비만에 관한 실험논문이 56일로 가장 많은 실험기간이, 처방약물에 관한 실험이 평균 4일의 실험기간이 소요되었다. 특히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실험에서 10편중 2편만 실험기간이 하루 이상이었으며, 나머지는 하루 이하의 실험기간, 경련의 경우 3편의 논문 모두 하루 이하의 실험기간으로 즉시적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을 위하여 질병유발을 유도한 논문은 24편(47.1%)으로 그 중 면역기능저하와 알레르기를 유발시킨 논문이 각 10편, 경련, 통증을 유발시킨 논문이 4편, 당뇨 3편, 스트레스 2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986년부터 1998년까지 질병을 유발시킨 31편의 논문 중 19편이 면역기능저하와 알레르기를 유발시킨 논문으로 전체 질병유발 논문 중 61%를 차지하였고, 1999년 이후로는 유발질환의 종류가 고르게 연구되었다.

질병유발방법으로는 경련의 경우 strychnine, petylenetetrazol, strychnine, picrotoxin, Caffeine, 중금속, 전기자극 등 가장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면역기능 저하의 경우 SRBC항원이나 methotrexate, 당뇨는 streptozotocin, 알레르기는 histamine, serotonin, Picrylchloride, SRBC, homologous, Lucigenin, Luminol, 통증은 초산생리식염수, 스트레스는 FBS감량이나 전기자극, 비만은 cholesterol diet, 근위축은 후지고정법, 부종은 Carrageenin, 간중독은 galactosamine을 사용하여 질병을 유발시켰다.

통계처리방식을 기록한 논문은 실험논문 51편 중 24편(47.1%)으로 1994년 이전 모든 실험논문이 통계방식을 기재하지 않았고, 1995

년 이후 실험논문 35편 중 24편(69%)이 통계처리를 기재하였다. Student's t-test를 사용한 경우가 9편(37.5%), Duncan test를 사용한 경우가 4편(16.7%)의 순으로 많았고 나머지는 각기 고르게 나타났다.

임상연구의 경우 크게 개입여부에 따라 관찰연구와 개입연구로 구분하였고¹³⁾, 관찰연구는 방법에 따라 증례보고와 환자조사, 횡적연구, 환자-대조군연구, 코호트 연구로 나누었지만¹⁴⁾ 총 90편의 임상논문 중 횡적연구나 환자-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의 예는 한편도 없었고 환자조사와 증례보고 형태, 그리고 단순한 내원환자의 주소별 통계처리를 한 논문이 전부를 차지하였다.

개입연구의 경우 연구자가 특정한 조작을 가한 후 그 결과를 관찰하여 분석하는 방법으로 총 90편의 임상논문 중 개입연구 형태가 21편으로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한 경우는 '소아재발성 삼출성 중이염에 가미형개연교당이 중이강 삼출액 내 Immunoglobulin-G아형에 미치는 영향'(제15권 1호), '소아 재발성삼출성 중이염에 가미형개연교당이 중이강삼출액내 세포활성물질에 미치는 영향'(제13권 2호), '항통 및 요배통 환자에서 세라핼 마스터 온열치료기의 효과'(제14권 2호) 3편의 논문이 있었지만 무작위비교임상시험(Randomized controlled clinical trial, RCT)에 해당하는 연구는 한편도 없었다.

임상유형별로 총 90편의 임상 논문 중 환자조사에 관한 논문이 31편으로(34.4%)로 가장 많았고, 증례보고 26편(28.8%), 개입연구 21편(23.3%), 통계처리 12편(13.3%) 순으로 나타났다.

1995년 이전에는 환자조사와 증례보고에 관한 논문이 전부를 차지하였고, 1996년 이후 고른 임상유형 형태를 보이고 있다. 1997년 3

편 모두가 환자조사에 관한 논문 이었고, 1999년 11편의 논문 중 6편이 환자조사, 2001년에는 일정한 처방이나 치료법에 대한 효과를 연구한 개입연구가 23편 중 10편에 이르렀다.

연도별로 2001년에 23편으로 가장 많은 임상연구가 시행되었고, 다음 2002년에 20편의 임상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총 90편의 논문 중 2001년 이후 43편의 논문이 발표되어 전체 임상논문 중 48%가 2001년 이후에 발표되었다.

학교별로 총 90편의 임상논문 중 경희대가 28편(31.3%)으로 가장 많았고, 동국대 23편(25.6%), 원광대 16편(17.8%), 동의대 7편(7.8%), 대전대 6편(6.7%) 순으로 나타났다.

경희대는 28편의 임상논문 중 증례보고가 10편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대와 동의대는 환자조사에 관한 논문이, 동국대의 경우 환자조사, 증례보고, 개입연구가 각 6편으로 가장 높은 임상연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논문의 관찰대상은 평균 123.69명, 그 중 통계처리유형이 647.50명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조사 75.19명, 개입연구 43.50명, 증례보고의 경우 4.3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아과 외래환자의 주소증에 대한 고찰'(제10권 1호)의 경우 대상인원이 2227명으로 가장 많았고, 1명을 대상으로 증례보고를 한 경우도 15편이나 되었다.

임상논문의 관찰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총 90편의 임상논문 중 65편(72.2%)이고, 25편의 논문은 소수의 증례보고의 형식으로 관찰기간을 추정할 수 없었다. 평균 관찰기간은 11.54개월, 그 중 증례보고 형식이 19개월, 환자조사가 11.31개월, 개입연구가 10개월 통계처리가 9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관찰기간이 가장 긴 임상논문은 '성장장애를 주소로 내원한 환자의 치료효과에 대한 고찰'

(제12권 1호), '수족소력, 강직, 마비를 주소로 입원한 환자 49명에 대한 임상적 고찰'(제13권 1호)로 48개월의 관찰기간이 소요되었다.

V. 결 론

1986년부터 2002년까지 발간된 20권의 대한한방소아과학회지에 발표된 논문 244편의 내용을 조사, 내용별로 분류한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244편의 논문 중 문헌논문 103편(42.2%), 임상논문 90편(36.9%), 실험논문 51편(20.9%)으로 1997년이전까지 문헌논문이, 1998년 이후부터 임상논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논문 중 경희대 89편(36.5%), 동국대 66편(27%), 원광대 30편(12.3%), 대전대 27편(11.1%), 경산대 9편(3.7%), 동의대 9편(3.7%), 우석대 1편(0.4%)으로 1995년이전까지 경희대가, 1996년 이후부터 동국대가 가장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3. 55편(22.5%)의 논문에서 40종의 처방이 사용되었고, 그 중 실험논문이 32종, 임상논문이 11종, 문헌논문이 2종의 처방을 연구주제로 사용하였으며, 11편의 논문에서 8종의 단방약물이 논문의 연구주제로 사용되었다.
4. 세부내용별 면역기능에 관한 내용이 13편, 비염과 성장에 관한 논문이 각 12편, 알레르기에 관한 논문이 11편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빈도 20종의 세부내용

이 전체논문의 68%를 차지하여 다빈도 질환에 대한 연구편중경향을 보였다.

5. 논문분류별 실험논문은 면역기능, 임상논문은 주소증의 통계처리와 비염, 문헌논문은 설사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학교별 경희대는 알레르기, 원광대는 비염, 동국대는 지능, 대전대는 면역기능에 관한 논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6. 전체 244편의 논문은 평균 16.01페이지, 저자수 2.51명, 참고문헌 36.18종으로 나타났다, 실험논문은 실험기간 평균 14.54일, 실험군 평균 7.53마리, 임상논문은 관찰대상 평균 123.69명, 관찰기간 11.54개월로 나타났다.
7. 실험논문 중 질병을 유발시킨 논문은 24편(47.1%)으로 면역기능저하와 알레르기 유발이 가장 많았고, 경련, 통증, 당뇨, 스트레스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처리방식을 기록한 논문은 24편으로 Student's t-test, Duncan test 순으로 많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8. 임상논문 90편 중 환자조사 31편(34.4%), 증례보고 28편(28.8%), 개입연구 21편(23.3%), 통계처리 12편(13.3%)으로 나타났다 2001년 이후 발표된 논문이 43편으로 전체 임상논문의 48%를 차지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한방소아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형식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도 학문적, 방법론적, 기술적 기반은 취약하다고 할 수 있고, 변화하는 의료시장의 추세에 따라 의학 또한 사회전체의 보편성과 신뢰성의 획득이 요구되는 바 한의학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논문에 관한 세심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다고 사료된다.

參考文獻

1. 이승영. 논문작성과 연구태도. 서울:박영사. 1986:7.
2. 박은자. 논문작성의 이론과 실제. 서울:수서원. 1992:14.
3. 손대곤. 대한응급의학회지 논문의 분석 및 고찰. 대한응급의학회지. 1995;8(1):24, 27.
4. 김재문, 정태성, 김신. 역대 대한소아치과학회지 게재논문의 분야별 분포에 대한 조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2002;29(2):270.
5. 동의소아과학편찬위. 동의소아과학. 서울:정담출판사. 2002:19.
6. 이정열, 이선동. 한국 한의학 논문의 연구설계와 통계분석에 관한 연구정황. 한의학연구소논문집. 1998:109.
7. 박종운, 박찬국. 한의학 학위논문의 내용에 대한 조사연구. 대한원전의사학회지. 1993; 17:163.
8. 김용래. 연구와 논문작성. 서울:홍익대출판부. 1990:21,33-37,38,42,48,50,54.
9. 신영수, 안윤옥. 의학논문방법론. 서울:서울대출판부. 1997:33-37.
10. 김도현, 이인선. 한방재활의학과 관련 논문에 대한 조사연구. 한방재활의학회지. 1998;8(2):261.
11. 안윤옥, 이형기. 의학에서의 연구방법론. 한국역학회지. 1991;12(2):107-114.
12. 보건복지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1999: URL:http://www.mohw.go.kr/services/service.jsp

?itn=tbdata&sa=11&sno=1278&silukc
ode=1500&key=subject&value=전문의
&face=03&btype=5.

13. 트리샤그린할프. 의학논문 제대로 읽기.
서울:몸과마음. 2000:102,103.
14. 안상우. 한의학임상연구방법론. 서울:한국
한의학연구원. 2002:26.